**마2109 Note**

**◆ 호산나(HOSANNA):**

호산나(라틴어 osanna, 그리스어 ὡσαννά, hōsanná)라는 용어는

히브리어 낱말 호시아-나(הושיעה־נא, הושיעה נא)에서 왔으며

이는 "구원"을 뜻하는 아람어 오샤나(אושענא)의 호시아나(hôšî‘â-nā)의 준말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의미하며 찬양과 기원에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로,

기쁨과 승리를 표현하는 환호성이며, 구원의 희망을 외치는 말이다.

주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신 것을 기념하는 초막절에 사람들은 시편 118편의 구절을 찬송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시118:25. 오 여호와[예호봐,야붸:자존(自存)자,영원한 자,여호와,주님]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지금 구하소서 (야솨:열려있다,넓다,의롭다,완전하다,자유롭게 하다,돕다,구조하다,옹호하다,해방하다,해방자,돕다,보존하다,구출하다,안전하다,구원하다,구원을 가져오다,구원자,승리를 얻다), 오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지금 번영(짤라흐: 앞으로 돌진하다,돌발하다,세차게 오다,~을 건너가다,좋다,번영하다,번영케 하다,적당하다,유익하다,형통)을 보내소서.

시118:26.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송축 받을지어다[바라크: 무릎 꿇다,(숭경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송축하다,(하나님이나 임금을 반역으로)저주하다,사람을 은혜로 복주다, 풍성하게,전적으로,전혀,신성모독하다,크게,참으로,무릎 꿇다,축복하다,축하하다,찬양하다,경배하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당신을 송축하였나이다,

예루살렘으로의 주의 승리의 입성 때에도 무리가 “호산나”를 외치고 예수가 타고 가도록 종려나무 가지를 펴 놓아서 예수가 고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동일한 주임을 그들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시 118:25~26; 마 21:9, 15; 막 11:9~10; 요 12:13).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오래 기다리던 메시야로 인식하였다.

호산나라는 말은 모든 시대에 걸쳐 메시야를 찬양하는 말이었다(니전 11:6; 3니 11:14~17).